

'95월간양계 선정 10대 뉴스

— 편 집 부 —

닭고기 수입권 최초 공매

UR협상의 일괄타결로 금년부터 최소시장 접근방식에 따라 냉동닭고기(닭고기 미절단 냉동 HS 0207210000, 닭고기 절단육 냉동 HS 0207411000)의 수입이 쿼터방식으로 개방되어 지난 3월 9일, 28일에 축산물 유통사업단을 통해 공매가 이루어져 많은 양계인들을 긴장시킨 바 있다.

7,700톤중 1차공매시 3,000톤, 2차시에 4,700톤을 각각 공매하여 절단육은 전량 낙찰, 미절단은 일부가 유찰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당초의 우려와는 다르게 수입닭고기에 대한 관심도는 다소 낮았었으며 육계 계열화업체들의 소극적인 참여가 특징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각 업체에 배정된 물량은 7, 8월에 대개 수입이 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국내 육계 출하 가격의 기복이 심하여 경쟁력이 떨어져 가공용으로서의 사용이 대부분이었고 일부 절단육중 다리는 일반 시장에서 유통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수입된 냉동닭고기는 약 4,000여 톤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입을 포기한 잔여량의 처리와 '96년분 수입방식에 관심이

쏟리고 있다.

사료 및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부분적용

양축농민의 최대 관심사로 손꼽혀 왔던 배합 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시행은 되고 있으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혜택 폭이 매우 좁아 커다란 실망감을 갖게 하였다.

축산기자재의 경우 지난 3월 30일부로 최종 확정 공포하여 시행에 들어가 50여종에 대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조치되었다. 그러나 양계 기자재의 경우 특수성이 많아 국내생산이 어렵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수입기자재를 사용케 되는 바 수입기자재에 대하여는 수입업자가 일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되어 자동화 시설을 하는 농가에서 직접 또는 리스자금으로 구입할 때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배합사료는 지난 9월 26일자로 시행에 들어가 부업규모 양축농가에게만 혜택을 주도록 되어 전업양축농가의 혜택은 관철되지 못하

였다. 양계의 경우에는 1만수이하 농가가 해당 되는데 대략 사육수수로 볼 때 15%정도에 머물러 국제경쟁력제고 차원에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의 전면 확대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다.

'95 양계박람회 개최

본회가 주관하여 개최한 '95한국양계박람회가 지난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에 걸쳐 한국종합전시장(KOEX)에서 열려 총 138개 업체가 참가하여 98,000여명의 입장객을 끌어들이는 대대적인 행사로 치뤄졌다.

한국양계산업의 세계화란 주제를 내걸고 개최된 '95한국양계박람회는 규모 면에서나 전시 내용에서 지난 대회때 보다도 한층 성숙했다는 평가와 함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양계인들의 강한 의지를 그대로 표출시켰다는 각계각층으로부터 후한 점수를 얻었다.

우수양계인 선발대회

'95한국양계박람회 행사의 일환으로 실시됐던 우수 양계인 선발대회에서 산란부문에는 최우수상 김주홍(상신농장), 우수상 박동원(선린농장), 장려상 김정식(자연농장) 정연경(신촌농장)씨가, 육계부문에서는 최우수상 이계석(법성포농장), 우수상 김석기(원호농장), 장려상 김동섭(동해농장) 정기철(석천농장)씨가 각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번에 최우수상을 받은 농장들의 특징을 보면 상신농장(채란계)의 경우 컴퓨터를 통한 철저한 기록관리를 바탕으로 자료를 비교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 경영의 합리화를 꾀하고 있으며, 법성포농장(육계)의 경우 계열화에 참여하면서 사육에만

신경을 써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는데 좋은 결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본회검정소 자동화 시설도입

일반 양계농가의 급격한 시설자동화로 인하여 무창계사의 보급이 보편화되어 고밀도 사육이 주류를 이루게 되면서 본회에서도 닭의 경제능력 검정사업을 일반 양계농가의 사육환경과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난 '94년에 축산발전기금에서 보조를 받아 현대화된 고밀도 자동화계사(성계사 1동, 육추사 1동 공히 12,000수규모)를 신축한 바 있으며 '95년도에 동일 규모의 성계사 1동을 건축 중에 있어 이 계사가 완공되면 '97년도까지는 재래식 시설과 병행 검정을 실시하고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후부터는 점진적으로 고밀도 사육으로 전환하여 전면 검정사업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닭고기 신문광고 논란

본회와 육계계열기업협의회가 공동제작하여 닭고기의 소비촉진을 위해 지난 5월 조선일보 등 주요 일간신문의 광고게재와 관련하여 타육류의 정확한 명칭을 표기하지 않고 붉은 고기를 구워 먹으면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형성된다는 광고내용에 대해 쇠고기와 돼지고기가 상대적으로 나쁜 이미지로 비추어져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렇다는 정확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관련단체에서 강력한 항의가 제기되어 본회는 즉각 광고게재를 중단하고 관련단체에 타육류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닭고기의 우수성을 상대적으로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하고

업계 화합차원에서 사과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일단락 되었다.

양계산물 KS 및 품질인증

그간 계란과 닭고기는 있는 그대로 소비자에게 동일한 상품으로 공급이 되었으나 소비수준의 향상으로 품질 고급화 쪽으로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본격 상표화 시대를 맞이하였다.

닭고기는 육계계열화업체들이 자기가 생산한 닭고기를 차별화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신뢰감을 주기위해 상표를 사용하면서 품질향상을 도모하였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는 (주)하림이 생산하는 닭고기의 품질수준을 인정받아 KS마크를 획득하였으며, 고센농장은 자연방사시킨 닭에서 생산하는 유정란이 품질인증을 획득한 바있다.

배합사료가격 인상

양계산물 생산비의 약 6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사료비는 국제경쟁력강화에 있어 막대한 영향력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료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곡물 생산국보다 원자재비면에서 불리한 입장인데 지난 '94년의 여름 무더위로 곡물을 생산하는 나라들의 작황이 부진하여 옥수수뿐만 아니라 주요 사료원료들의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그 밖의 수입국들의 자체 생산량도 감소하여 수입량이 많아지게 되자 사료원료 수급이 부진하여 국제곡물가격이 급상승한 여파로 금년초에 약3~4%의 배합사료가격이 상승하였고 이어 7~8월에 6~7%가 인상

되어 전체적으로 약 10%정도 인상되어 양계산물 생산비에 압박을 가했다.

'95년 말에도 곡물값이 강세를 보이자 '96년 초반에 다시 배합사료가격이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가금티푸스 등 닭 질병 만연

특정지역 또는 계절적으로만 발병율이 높았던 닭 질병이 금년에는 지역, 계절, 병명에 관계없이 만연되어 양계업계에 심각한 피해와 후유증을 남기게 되었다.

가금티푸스를 비롯 추백리, 뉴캐슬, 전염성 기관지염, 감보로 등 생산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미치는 질병이 주로 양계농장이 밀집된 곳이나 단지, 대규모 농장에서 속속 발생하여 배합사료 생산실적으로 볼 때 예년에 비해 비공식집계로 약 20%이상 생산저하를 일으킨 것으로 진단이 된다.

산물시세 사상 최고치 기록

지난 '94년 여름 무더위 피해 이후 중계를 비롯 실용계 생산 잠재력이 크게 증가세를 보였으나 질병의 급증으로 생산성이 급격히 저하되자 계란의 경우 부산에서 특란의 산지출하가가 100원까지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육계도 닭고기 수입의 원년이란 악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병아리의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병아리 값이 500원대를 장기간 유지하는 가운데 닭고기 비수기로 접어드는 10월의 경우 산지시세가 kg당 2,000원선까지 폭등하는 사례가 나타나 양계산물시세는 생산성 저하로 생산량이 적어지면서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이변을 낳았다. **양계**